

광주 풍암호수공원, 문화예술시설 탈바꿈

중앙공원 시행사, 언론 간담회 열어 로드맵 발표
테마숲 조성·정원박람회까지...”녹지 콘텐츠 발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인 광주 서구 중앙근린공원 1·2지구에 대해 국가 차원 도시공원 지정 추진안이 반영된 로드맵이 제시됐다.

민간사업자는 중앙근린공원 내 8개 테마숲을 조성하고 정원박람회 유치에도 나설 계획을 밝히는 등 국가 도시공원에 손색 없는 콘텐츠 발굴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시행사)은 21일 광주 서구 중앙근린공원 1지구 일대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중앙근린공원 언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시행사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 내용에 발맞춰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로

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지역의 향토수종을 중심으로 조형미·예술성을 앞세운 ‘어울림 숲’을 필두로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등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의 숲’, 풍욕장과 캠핑장을 담은 도심속 힐링 공간 ‘치유의 숲’ 등을 제시했다.

도시환경 고민과 생태계 재구축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족의 숲’, 중앙공원 곳곳에 조성된 장미정원을 개·보수해 정원·체험형 장미원으로 탈바꿈하는 계획도 물망에 올랐다. 스포츠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활력의 숲’, 광주·전남의 오래된 이야기를 간직하는 ‘예향의 숲’도 제시됐다.

테마숲과 별개인 마을숲 11곳을 올해 연말까지 완공해 기존 중앙공원 내 산책로를 강화한다. 중앙근린공원 1지구 내 핵심 시설인 풍암호수공원도 수변문화예술시설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김도기 기자



“지구를 살려요”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서 북구청어린이집 아이들과 기후환경과 직원들이 ‘지구 살리기 길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북구 제공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향년 88세

교황청 “주님·교회에 헌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 시간) 선종했다. 향년 88세.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오전 7시35분께 선종했다고 발표했다.

케빈 페틸 공무처장은 “오늘 오전 7시35분, 로마 주교 프란치스코가 성부의 집으로 돌아갔다”며 “그분은 평생을 주님과 교회에 헌신했다”고 밝혔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충실함과 용기, 그리고 보편적 사

랑으로,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의 모범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교황 프란치스코의 영혼을 하나님 이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무한하고 자비로운 사랑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 로마 전역에 교회 종탑이 울려 퍼졌다.

젊은 시절 만성 폐 질환을 앓고 한 쪽 폐 일부를 제거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14일 호흡 곤란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한 뒤 양쪽 폐렴 진단을 받았다. 즉위 후 가장 긴 기간인 38일을 입원한 뒤 지난달 23일 두 달간의 회복 관찰 등을 전제로 퇴원했다.

입원 중 두 차례 위기를 겪었다. 2월28일 호흡 곤란을 겪었을 때 치료 중단까지 고려했었다는 의료진의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뉴시스

이재명 후보 호남 경선도 독주 가능할까

26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호남 국회의원 대다수가 친명·이 후보 유리
담양군수·경선홍행 실패...반민주 정서 존재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90%대 득표율로 압도적인 지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본산인 호남 득표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는 첫 경선인 충청권에서 88.15%의 득표율을 올린 데 이어, 영남권에서 90.81%를 기록해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전북 호남권 순회 경선이 치러진다.

관심은 이 후보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어느정도 득표율을 올리는지다. 이번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호남권 권리당원 수는 광주 7만명, 전남 15만명, 전북 16만명으로 대략 38만명에 달하며, 이는 민주당 전국 권리당원 110만명의 35%를 차지한다.

충청과 영남의 경선을 합한 득표율은 이 후보 89.65%, 김동연 후보 5.27% 김경수 후보 5.17%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기류 속에 이 후보의 독주체제가 강화되고 있어 호남의 득표율

도 이 후보에게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호남권 국회의원 대다수가 ‘친명(친이재명)’계로 재편된 점도 호남권 경선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특히 호남 유권자들이 그동안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서 향후 정국을 감안해 전략적 선택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경선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호남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득표율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민주당 본산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어, 향후 정국 흐름까지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지역별 득표율은 향후 내각 인선과 지역 공약 이행, 당권 등과도 상관 관계가 있어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이 후보의 독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최근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게 일격을 받아 안방을 내줬다.

지난해 10월 영광군수 재선거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협공에 득표율 41%로 간신히 체면치레를 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이미 반민주 정서가 확인됐다. 당시 광주와 전남지역 유권자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민주당의 경선이 이 후보의 독주로 ‘부자 몸조심’ 하듯 일반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것도 경선에 5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 조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도기 기자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